

Formation Friday March 15, 2024 (KOREAN TRANSLATION BELOW)

Please share with your local fraternity.

The OFS-USA National Fraternity has recently published “From Gospel to Life,” the OFS Rule with Commentary. This occasional series highlights the Prologue (See November 17th and 24th) and the articles of the Rule, the commentary, and questions based on this publication for fraternity discussion. **You may order “Gospel to Life”** at this link:

https://www.secularfranciscansusa.org/wp-content/uploads/Order-Form_October_2023rev.pdf

Rule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Chapter 2 Articles 12, 13, and 14

Article 12: Witnessing to the good yet to come and obliged to acquire purity of heart because of the vocation they have embraced, they should set themselves free to love God and their brothers and sisters.²¹

Article 13: As the Father sees in every person the features of his Son, the firstborn of many brothers and sisters,²² so the Secular Franciscans with a gentle and courteous spirit accept all people as a gift of the Lord and an image of Christ.²³

A sense of community will make them joyful and ready to place themselves on an equal basis with all people, especially with the lowly for whom they shall strive to create conditions of life worthy of people redeemed by Christ.²⁴

Article 14: Secular Franciscans, together with all people of good will, are called to build a more fraternal and evangelical world so that the kingdom of God may be brought about more effectively. Mindful that anyone “who follows Christ, the perfect man, becomes more of a man himself,” let them exercise their responsibilities competently in the Christian spirit of service.²⁵

Commentary

Article 12: The result of simple living in gospel poverty is freedom to seek and share the great treasure of the kingdom: loving God and neighbor (12).

Article 13: Hand in hand with simple living is coming to recognize that in Christ all are equally brothers and sisters (13). There is no room for prejudice or exclusiveness in the Franciscan way of life. In fact, the sense of community and the will toward community compel the Secular Franciscans to discover Christ in everyone, especially the lowly and poor and disadvantaged.

Article 14: The natural consequence to simple living and a sense of community is selfless service (14). Secular Franciscans expend themselves by using their special talents, competence, and responsibility. Thus, they bring to others the experience of God and the hope for achieving their full humanity.

For discussion with a partner, in a group, or to comment on in your journal:

+Re-read article 12 and the commentary:

--What do you think “set themselves free means?”

- How do you set yourself free to love God?
- How do you set yourself free to serve others?
- How can you simplify your life so that living the gospel becomes possible?

+Re-read article 13 and the commentary

--How do you see Christ in others?

- What is challenging about accepting everyone as a “gift of the Lord and an image of Christ?”
- How do 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affect fraternity and family life?

+Re-read article 14 and the commentary

--What does carrying out our responsibilities effectively mean to you?

- How do you use your talents in service to others?
- How do you set priorities in your service to others?

금요 양성 2024년 3월 15일 (단위 형제회와 공유하세요)

미국 국가 형제회가 최근에 “복음에서 삶으로” 라는 주석이 담긴 재속 프란치스칸회 회칙을 발간했습니다. 가끔씩 발행되는 이 시리즈는 회칙의 머리말 (11월 17일자와 24일자), 회칙의 조항들, 주석 그리고 형제회안에서의 토론을 위해 만들어진 질문들을 제공합니다. 다음의 링크에서 “삶으로의 복음” 이란 책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secularfranciscansusa.org/wp-content/uploads/Order-Form_October_2023rev.pdf

프란치스칸 재속회 회칙 2장 12-14 조

회칙 12조: 회원은 내세 행복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자신이 받은 성소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할 의무가 있다. 그리하면 자유롭게 하느님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회칙 13조: 성부께서 수많은 형제들의 만이 이신 성자의 모습을 각 사람 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회원도 모든 사람을 주님의 선물이자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겸손하고 인간답게 받아들일 것이다.

회원은 형제애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또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회원을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칙 14조: 선의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하도록 불리운 회원은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 더 완전한 인간이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크리스천의 봉사 정신으로 자신의 책임을 힘껏 완수해야 한다.

주석

제 12조: 복음적 가난을 단순히 살아감으로써 얻게되는 결과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의 위대한 보물 즉 하느님과 이웃사랑을 추구하고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제 13조: 단순한 삶에 수반되는 것은 예수님안에서 모든 이가 똑같이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13) 프란치스칸 생활 양식에는 편견이나 배제가 있어서는 안된다. 사실,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를 향한 의지로 인해 재속프란치스칸은 모든 이안에서, 특별히 보잘것 없고 가난하고 불우한 이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제 14조: 단순한 삶과 공동체 의식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결과는 이기심없는 봉사이다 (14). 재속 프란치스칸은 자신의 특별한 재능과 능력 그리고 책임감을 이용해서 자신을 최대한 사용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느님 체험과 완전한 인류애를 성취할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다.

짜과 혹은 모임에서 토론을 하거나 일기장에 의견을 써 보세요:

+12조와 주석을 다시 읽으시오:

– “자유롭게 ... 될것이다” 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어떻게 자유롭게 하느님을 사랑합니까?
-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봉사합니까?
- 복음을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삶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까?

+13조와 주석을 다시 읽으시오:

– 다른 사람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 모든 사람을 “주님의 선물과 예수님의 모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제회와 가족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까?

+14조와 주석을 다시 읽으시오:

– 우리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와 닿습니까?

-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하는 봉사를 할 때 어떻게 우선 순위를 둡니까?